

## 한·러 민간외교의 상징 야쿠츠크 사하한국학교 개교 30주년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한국사하친선협회 회장

야쿠츠크는 러시아 극동연방관구에 속한 사하 공화국(야쿠티아)의 수도이다. 도시명 ‘야쿠츠크’와 지역명 ‘야쿠티아’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러시아어 명칭 ‘야쿠트’에서 유래했다. 이곳의 다른 이름인 사하(Sakha)는 이들을 부르는 튀르크계 명칭에서 기원했다고 한다. 17세기 동쪽으로 탐험하던 러시아인들이 이곳에 도착하여 ‘야쿠트’라는 용어를 바탕으로 지역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야쿠트인들은 스스로 ‘사하’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곳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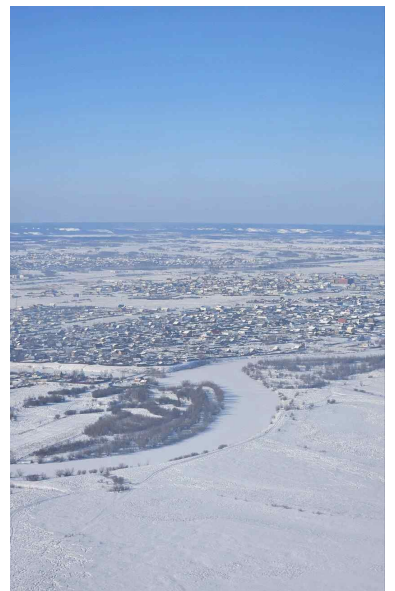
야쿠츠크는 바이칼 근처에서 발원하여 북극해로 흐르는 레나강 중류 강변에 1632년 표트르 베케토프가 요새를 건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미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야쿠트인은 유목민이었는데, 러시아인들은 이들을 지배하기 시작하여 러시아 제국 안에 편입시켰다. 17~18세기경 야쿠츠크는 시베리아에서 유명한 모피 생산지가 되었고, 19세기 말에는 금광이 발견되면서 도시로 발전했다. 소련 시절인 1922년 사하(야쿠티아) 자치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야쿠츠크는 수도가 되었는데, 이후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연방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도 자치공화국의 수도로 유지되었다.

인구 30만의 비교적 큰 도시인 야쿠츠크는 야쿠트인 외에도 여러 민족이 거주하는 다민족 사회로 성장했다. 이곳에는 중앙아시아나 사할린 등지에서 옮겨온 고려인들도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치공화국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기도 했다. 고려인들은 특유의 성실함과 농업

기술 덕분에 한겨울 온도가 영하 30~40도를 넘어가는 혹독한 추위와 짧은 여름이라는 환경을 극복하며 놀라운 생존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러시아연방 구성원들은 각자도생 상황에 몰렸다. 사하공화국도 마찬가지였는데, 러시아이면서도 동시베리아에 존재한다는 상황은 오히려 한국과 가까워질 기회를 제공했다. 당시 사하공화국의 교육 분야를 주도하던 몇몇 젊은 엘리트는 사하의 정체성 회복과 강화를 위한 바탕을 교육에서 찾자 했다. 튀르키예,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이 그

들의 의지를 구현하게 돕는 파트너가 되어, 사하튀르키예학교와 사하독일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이런 학교들이 설립된 목적은 주로 교육을 통해 사하의 정체성을 찾고, 잃어버린 전통과 문화를 회복하며, 개방을 향한 외국과의 창구를 만들고자 함이었다.



인구 30만 규모의 야쿠츠크는 시베리아의 혹독한 환경 속에 17세기 모피 생산지로 시작되어 금광 등 지하자원 개발로 발전했다. (출처: 저자 제공)



야쿠츠크에 거주하던 고려인들도 야쿠츠크에 한국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견을 공화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예브게니야 미하일로바 사하공화국 교육감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1994년 한국의 교육 정신을 사하공화국에 접목한 사하한국학교가 문을 열었다. 이 학교 설립 과정에서 당시 이곳과 교류를 시작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강덕수 교수의 헌신이 큰 힘을 발휘했다. 강덕수 교수는 한국인 대학생들로 구성된 교사들을 야쿠츠크에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사하한국학교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어린 학생들이 해외에 대한 감각을 가질 기회를 제공했다.



북동연방대학교 한국어 전공 안상철 교수가 훈민정음을 서예로 직접 작성하여 사하한국학교에 기증했다. (출처: 저자 제공)



사하한국학교 설립을 주도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강덕수 교수와 미하일로바 당시 교육감 (출처: 저자 제공)

당시 사하한국학교에 파견된 한국인 교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식 교육방식을 이식했다. 이 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김행근 선생님 등 야쿠츠크에 파견된 여러 한국인 교사의 성실함과 헌신에 현지 학부모들이 감동했다. 이에 강덕수 교수는 사하한국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고, 한국 사회의 여러 관심과 지원을 얻고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 다양한 시도를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다. 한국에서 조직된 봉사단 선생님들이 현지에 파견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태권도와 사물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를 가르쳐주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에서 사단법인 한국사하친선협회가 설립되면서 사하한국학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협회는 사하한국학교 지원에서 이전보다 더욱

조직적인 체계를 마련했고, 이 학교 학생들의 한국 방문을 주기적으로 준비하며 실행하기도 했다. 특히, 개교 10주년과 20주년을 거치며 한국사하친선협회와 사하한국학교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협회는 이 학교 선생님이 한국의 학교를 방문하여 연수를 받을 기회를 마련해주었고, 현지 학교에 필요한 승합차를 지원해주기도 했다.



사하한국학교의 한국어 수업은 저학년과 고학년 모든 학생에게 인기가 높다. (출처: 저자 제공)

1990년대에 시작된 사하공화국의 민족학교 만들기 노력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했고, 당시에 설립된 학교들은 차츰 폐교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현지 학부모들은 사하한국학교에 여전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이 학교 졸업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며 대학에 진학하고 사하공화국 사회에서 점차 성공을 거



두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공부한 선배가 선생님이 되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사례도 생겼다. 애초 사하공화국에서 학교를 설립하고자 했던 목표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결과는 사하공화국 전역에서 한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한 민간외교 활동에 대한 좋은 평가와 함께 새로운 교류의 기회도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1956년 야쿠츠크에 설립되어 사하공화국 교육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북동연방대학교에 한국어 전공이 개설됐다는 점은 가장 큰 수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동연방대학교 한국어 전공을 기반으로 야쿠츠크에 세종학당이 개관하기도 했다. 2013년부터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북동연방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 포럼이 여름마다 개최되어 대학생 교류도 활성화되었고, 양측에서 파견하는 교환학생도 꾸준히 늘었다.

야쿠츠크와 사하공화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도 늘어났다. 특히 LG상사가 2011년에 지은 LG사하센터(현 LX센터)는 야쿠츠크를 대표하는 공간이 되었다.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현지법인과 한국 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도 생겼으며, 한국인이 가르치는 커피 마스터클래스가 열리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지는 한국 이미지는 야쿠티아 항공이 야쿠츠크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정규 직항편을 편성하게 했고, 이는 사람들을 더 빠르고 편하게 서로 방문하도록 해주었다. 사하공화국 사람들은 의료, 관광, 교육, 다른 국가로의 이동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서 한국을 더욱 많이 방문했다.

대학생 포럼을 위해 야쿠츠크를 찾는 대학생들은 포럼 참가 시간을 쪼개어 사하한국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수행했다. 이로써 한국 대학생들은 ‘대학생 포럼과 교류,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류’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한국 드라마와 K-팝으로 동영상 등 콘텐츠를 준비하고 국악 연주를 선보이는 등 한국 문화를 직접 시연해 보여주기도 했다. 사하한국학교 설립으로 시작된 양측의 교육과 문화교류는 대학생 수준으로 확대됐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교육 연구 분야 협력 활동이 이어졌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수선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교류도 위기에 빠졌다. 최근 수년간 양측은 물리적 교류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현재는 직항 없이 중국 하얼빈 등

제3국을 경유해야만 서로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와중에 2024년 사하한국학교는 설립 30주년을 맞이했다. 몇 년째 멈춰버린 사하한국학교 학생들의 한국 방문도 재개되어 지난 10월에 방한한 학생들이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경험을 즐겁게 해볼 수 있었다. 한편, 지난 11월 중순 야쿠츠크에서는 사하한국학교 설립 3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학교 설립에 참여한 강덕수 교수 등 한국 대표단이 야쿠츠크를 방문했다.



2024년 10월 재개된 한국 방문으로 사하한국학교 학생들은 서울, 전주, 강릉 등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했다. (출처: 저자 제공)



2024년 11월 중순 야쿠츠크에서 열린 사하한국학교 개교 30주년 기념행사는 다양한 축하 공연과 함께 동문과 학부모, 학생과 선생님 등이 참여하여 성대하게 진행됐다. (출처: 저자 제공)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현재 양국의 어려운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사하한국학교의 설립과 현재까지의 운영은 한국 사회 내에서도 다시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동토를 밟고 건설된 야쿠츠크와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사하한국학교는 교육 분야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공시킨 가장 훌륭하고 파급력이 큰 민간외교의 상징이다. 한국의 교육이 발전된 한국 사회를 만들어낸 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사하공화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의 교육철학과 문화가 이 학교 학생들과 사하공화국 전체로 스며들어 발전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